

“문화의 빛으로 새 강성 건설의 길 밝히자”

—길림시문학예술계연합회 제 10 차 대표대회 소집

12월 11일, 길림시문학예술계연합회 제 10 차 대표대회가 길림시기관회의센터에서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길림시 문학예술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길림시문학예술계연합회 제 9 차 대표대회 이래 길림시 문예사업과 문학예술계연합회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동으로 회고하고 향후 5년간 문예사업과 문학예술계연합회 사업 발전 구상을 공동으로 계획하였으며 <길림시문학예술계연합회 규약>을 심의, 개정하고 길림시문학예술연합회 새로운 지도기구를 선거하였다.

길림시당위 서기 호빈, 길림성문학예술계연합회 당조 서기이며 주석인 조명이 대회에 참석했다.

호빈은 길림시 당위와 정부를 대표하여 대회의 개최에 열렬한 축하를 표시했다.

호빈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길림시 광범한 문예일군들은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화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2위’ 방향, ‘쌍백’ 방침을 견지하고 새로운 문화사명을 용감하게 짊어지고 예술의 고봉에 용감하게 올라야 한다. 생활에 깊이 들어가고 대중 속에 뿌리내리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정품과 력



축사를 하고 있는 길림시당위 서기 호빈

작을 더욱 많이, 힘써 창작함으로써 작품으로 인민에 헌신하고 명덕으로 기풍을 선도하며 찬란한 문화의 빛으로 새시대 새 강성 건설의 길을 밝히야 한다.

조명이 길림성문학예술계연합회를 대표하여 대회에서 발언, 최근 몇년간 길림시 문예사업과 문학예술계연합회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 높은 찬양을 보내면서 길림시 문예사업의 번영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 강성의 실현에 조력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길림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전전부 부장인 마연이 개막식을 사회하였다.

회의 기간 대표들은 지혜를 모으고 건언헌책하며 문예의 번영 발전의 대계를 함께 상의하였다. 회의에서 광범한 문예일군들은 당의 혁신리론을 끊임없이 깊이있게 학습 관철 실시하고 덕을 쌓고 기풍을 바로세우며 문예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각적으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문예 풍채를 과시하고 인생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문화의 전승과 혁신을 추진하고 전통문예와 현대문예의 상호 참조를 견지하며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시종 덕예쌍형의 숭고한 추구를 견지하고 예술 리상을 고수하며 문화 정력을 유지하여 시대 기풍의 선각자, 선구자, 선창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회는 길림시문학예술계연합회 제 9 기 위원회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길림시문학예술계연합회 제 10 기 위원회 위원 포함 94 명을 선출하였으며 길림시문학예술계연합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였다.

권훙이 길림시문학예술계연합회 제 10 기 위원회 주석으로 당선되고 왕빙, 조해홍이 길림시문학예술계연합회 제 10 기 위원회 부주석으로 당선되었으며 왕가심, 주언봉, 리조, 저결의, 송해풍, 림강, 서풍, 강외강이 길림시문학예술계연합회 제 10 기 위원회 겸직 부주석으로 당선되었다.

이날 오후, 대회는 제반 의정을 원만히 완수하고 성공적으로 폐막되었다.

/ 강성일보

길림성청소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



일전, 길림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체육국 빙상운동관리센터 주관, 길림시빙상운동센터에서 협찬한 2024—2025 길림성청소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가 길림시체육관에서 열렸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아름다운 자태와 고수준의 기술로 관객들에게 피겨스케이팅의 매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 경기 종목은 싱글(单人), 페어(双人), 아이스댄스, 대렬(队列)을 포함, 연령별로 조를 나누었다.

참가단위는 장춘, 길림, 사평, 송원, 료원 등 여러 지역에서 온 10개 단위로서 시(구) 대표팀, 운동학교, 구락부, 아마추어체육학교를 포함

해 포함 64 명의 선수가 시합에 참가하다.

대회 조직측은 운동선수가 종목을 겸하여 경기에 참가할 수 있고 한 선수는 같은 종목에서 한조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스댄스, 페어스케이팅, 대렬스케이팅 종목은 소속단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길림성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등록수는 170 명으로 이번 경기는 신인 선수들의 솜솜치는 패기와 잠재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길림성의 인제 대오가 끊임없이 강대해지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향해 도전하도록 했다.

/ 송화강넷

길림시 나미산관광휴양지, ‘겨울놀이 신난다’



나미산관광휴양지가 개장후 첫 주 접대량이 연인수로 5,000 명을 초과

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지난 주말에 야간 스키를 시작함에 따라 이달말까지 전년 개방되던 이곳은 광범한 스키애호가와 관광객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눈놀이와 얼음놀이 체험을 가져다주게 될 전망이다.

나미산관광휴양지는 길림시 풍만구 강남향 유민가에 위치해있는데 올해 들어 길림시군중문화관에서 창작한 인형극 <빙설기우기>를 새 빙설시즌의 주제로 하여 ‘스키 + 교수 + 눈놀이’ 원스톱(一站式) 체험지를 중점적으로 만들었다.

스키장내에는 3 개의 고품질 눈길을 부설하고 관광객접대센터를 신축했는가 하면 설비를 갱신하고 높은 수준의 스키학교를 개설했다. 흑룡강성에서 온 스키감독팀을 초청하여 남성 스키 코치 대오를 확대했으며 길림시 4개 스키구락부와 협력을 전개하여 초중급 스키애호와 청소년

들에게 친절하고도 주도면밀한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빙설락원을 업그레이드하고 10 개의 미끄럼 활주로를 개설했다.

11 월 30 일 개장 이후 관광휴양지 빙설시즌 카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고 온라인 검색량과 호평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틱톡 플랫폼 스키 인기 순위(길림지역) 중 친자관광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3 일, 나미산관광휴양지는 야간 스키를 시작, 매일 17 시부터 21 시까지 모든 스키 코스를 개방하고 야간 스키 카드 우대정책을 출시하여 스키애호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달말까지 눈하우스, 눈캠핑, 눈파워랜드, 빙상락원 등 새로운 놀이 개발을 완료하고 아이스카, UTV 전지형차(全地形车) 체험 등 오락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 송화강넷

남방 ‘꼬마감자’들 길림시에서 겨울 정취 만끽



12 월 10 일, 길림시 풍만구 향요진의 겨울철 물고기포획기지 로악판고기잡이는 남방 ‘꼬마감자’(관광객)들의 즐거움 높이터로 변했다.

길림시는 올겨울 첫 강소성 남통친자관광단을 맞이했다.

80 여명의 남방 ‘꼬마감자’들이 이곳에서 팔라리, 미끄럼타기, 빙판고기잡이 등 활동을 체험하고 겨울 빙설의 격정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북국 강성의 매력에 도취되었다.

/ 송화강넷

길림역 동쪽 출구와 사천거리 연결 도로 개통

12 월 중순, 길림역 동쪽 출구와 사천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천거리 연결 도로 공사가 준공 개통되었다.

이 구간의 도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방통행한다. 남쪽 축석립방

공간 주택단지로부터 북쪽으로 화업빌딩 서쪽까지 도로 총 길이가 443 메터이고 가장 넓은 곳이 14.5 메터이다. 이 공사는 길림시정그룹이 시공을 맡았다.

11 월 24 일에 착공한 후 시공일군들

은 재료 사용에서 콘크리트 배합비를 조정하고 방동제와 조강제(早强剂)를 첨가하여 겨울철 시공의 질을 보장하였다.

올해 7 월 길림역 동출구로 통하는 눈강거리 철도 립체교 도로가 개통

된 데다가 이번에 사천거리 연결 도로가 개통되면서 길림역 동광장 주변의 교통환경이 크게 최적화되고 시민들의 출행과 환승에 큰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 송화강넷

룡담구 · 룡담산 · 룡담거리… 길림시의 ‘룡’자가 들어간 지명들

어느덧 룡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해—뽕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룡해를 마무리하는 12 월, 길림시의 ‘룡’자가 들어간 지명들을 짚아본다.

룡담구 :

길림시는 룡담구, 선영구, 창읍구, 풍만구 등 4 개 행정구역으로 확보되는데 그중에서 룡담구는 길림시 강북지역 전체를 망라하며 룡담구라는 지명은 구역내에 위치한 길림시 동북부 송화강 북쪽 기슭의 룡담산으로 인해 얻어진 지명이다.

룡담구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바 5 천여년전 만족의 선조들이 생활하고 거주한 지역으로 부여문화, 고구려문화, 발해문화 등 고문화의 발원지이며 현재 고구려산성, 우라고성 등 유적들이 보존되어있다.

중국 4 대 경관으로 꼽히는 길림시 무송 관광 명소인 무송도가 룡담구에 위치해있으며 룡담구는 새 중국의 첫 화학공업기지, 현 길림화학공업그룹의 전신인 길림화학공업회사가 동지를 튼 곳이다.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에서 편찬한 《길림시지(吉林市志)》의 기재에



룡담산성 수옥

의하면 길림화학공업회사가 설립되면서 전국 각지로부터 인재를 모집했다. 그 시기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도 적지 않은 조선족 인재들이 지원하게 되었는데 룡담구 강북지역은 조선족 밀집지역이 되었으며 따라서 생겨난 강북조선족소학교가 오래전에 폐교되었다.

그리고 한때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길림시 아라디 조선족 마을이 룡담구에 소재하고 있다.

룡담구에는 룡담산기차역, 룡담산 사슴농장, 룡담산호텔 등 룡담산 이름을 붙인 명칭들이 여럿 있다.

룡담산유적공원 :

룡담산공원은 국가 2A 급 관광지로서 부지면적이 202 헥타르이고 최고봉은 해발고가 388.3 메터로 산세가 웅장하고 고목이 하늘을 찌를 듯하며 조목이 울창하다.



룡담산 아래에 위치한 룡담교

구룡문광장 :

구룡문광장은 선영구 북산에 위치해있다.

1924 년 건설된 북산공원은 청조시기의 절이 있으며 불교, 도교, 유교 3 교가 공존하고 있어 아주 특별하다.

길림시 북산에 있는 9 개 산봉우리가 마치 9 마리 룡을 방불케 해 청조강화년간에 구룡산으로 불리었다. 아홉마리 룡을 조각해놓은 북산 구룡문광장은 시민들의 좋은 활동 장소와 휴식터가 되고 있다.

하룡교 :

길림시 하룡교는 1970 년에 준공, 원 길림시 하달만 나루터 위치이며 서남쪽은 길림시 창읍구, 동북쪽은 길림시 룡담구를 이어놓는 다리이다.

룡담대교 :

룡담산 아래 룡담대교는 1979 년 6 월에 준공되었는데 길이 455 메터, 너비 22.5 메터로 13 개 아치형,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다.

이외에도 길림시에는 룡담대가, 룡북로, 룡통로 등 ‘룡’자가 들어간 거리들이 있다.

/ 차영국기자